

우리는 우주의 거품속에서 살고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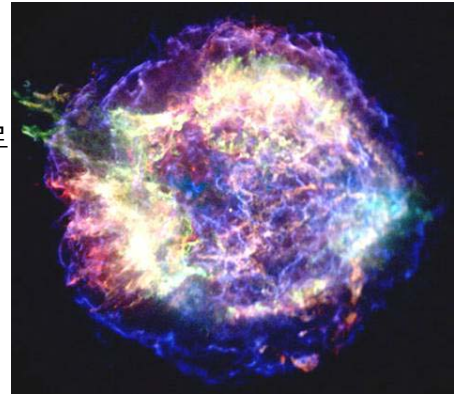
2008 년 9 월 30 일, “우주망”에서 발표한 “우리는 우주의 거품속에서 살고 있는가?”에서 《지구는 진공(眞空)의 이상한 시공(時空)거품속에 잠겨있을 뿐만 아니라 우주의 특수한 곳에 있는데 주위의 물질은 (천체도 포함됨) 우주의 다른 곳보다 매우 희소하다.》고 지적했다.이 리론은 우주의 가속팽창상태를 해석할수 있다고 과학자들은 인정하고 있다.



얼마전에 천문학자들은 자기 위치를 벗어난 태양, 2 가지 회전”팔”이 소실된 은하계(윗 왼쪽 사진은 지금의 은하계이고 윗 오른쪽사진은 이전의 은하계이다.)로 탄생한 항성, 폭발하고 있는 초신성(超新星)(오른쪽사진은 잔해(殘骸)로 된 은하계중의 가장 어린 초신성이다.), 우주중에서 “고아”로 되고 있는 은하계 등등 현상들을 발견했다. 이러한 우주의 거대한 변화는 머나먼 천체에서부터 우리의 고향인 지구에로 다가 오고 있다는 것을 명시해 주고 있다.

중국의 고대 사람들은 천일합일을 믿었으며 천상의 변화는 필연코 인간에게 영향을 준다고 인정해 왔다. 오늘날 지구에서 재해와 각종 이상

변화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것은 바로 천상변화인바 하늘이 사람들에게 올려주는 경종인 것이다. 오래고도 신비한마야인력법은 우리들에게 인류는 지금 바로 5 천년의 성계의 갱신을 경유했으며 1992 년부터 2012 년까지는 지구의 갱신기로서 부패한



물질을 도태시키고 정화된 물질을 남기고 인류는 새기원으로 진입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중국 당나라 시기에 남긴 예언 “추배도”에서는 2012 년에 지구를 다시 새롭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성경계시록”、제갈량의 “마전과”、류백운의 “소병가” 등 중외의 많은 예언들은 모두 이 시기에 인류가 대재난을 만나고 선량한 사람들만 이력사의 새기원으로 갈수 있다고 예언했다.

지금 파룬궁학원들은 사람들에게 인류도덕이 지극히 부패한 낡은 우주가 “진선인”에 부합되는 새로운 우주로 탄생되는 이시기에 우리들은 “진선인”표준에 부합되고 동화하여 아름다운 미래를 맞이하라고 진심으로 권고하고 있다. 파룬궁을 박해한 악인들은 탄압을 멈추고 모든 선량한 사람들은 하루 빨리 각성하여 중공에서 탈당하여 사악의 손에서 벗어나 평안을 확보하고 자신의 생명을 구원함이 현명한 선택이다.

대만 교육부에서 발급한 특별공헌인원상을 탄 진영총교장



대만 윤림현계림국소학교 교장 진영총(陳瑩聰)은 대만 교육부에서 발급한 민국 96 년도우선교정을 장려한 학생사업 및 보도사업특별공헌상을 탔다.

진영림교장은 파룬따파를 수련한후 “쩐싼런”을 자기반성의 표준으로 삼았을뿐만 아니라 학교를 꾸리고 사회구역 건설에 참여하는 기본태도로 삼았다. 이리하여 그는 학교사생의 존중과 사회구역 촌민들의 지지를 받았으며 금년에 본 학교는 영예롭게 생명교육 및 품덕교육 우수학교로 당선되었다.

“가을절”에 사람을 감동시킨 천국악단



지난 10월 13일, 초청을 받고 제 30 차 미국원소케드시 “가을절” 시위행진에 참가한 천국악단은 《파룬따파는 좋다.》 《법정건곤》 《법고법호는 시방세계를 진감》을 연주하여 관중들의 심금을 울렸다.

중공은 “독제품”을 합법화하고 있다

“독우유가루” 사건이 백일하에 들어나자 국내 인민들은 더없이 분개하고 국외 수십개 나라에서도 중국우유제품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는 이 때, 중공은 5부(五部) 위원회를 사촉하여 “영아 우유가루중에 포함된 멜라민 제한량수치는 6mm/Kg 이고 기타 우유제품중에 포함된 멜라민 제한수치는 2.5mm/kg 이다.”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고 또한 매체를 리용하여 “적은 량의 멜라민을 복용해도 해롭지 않다.”고 선전했다. 이것은 우유가루와 우유식품에 멜라민 제한량수치표준에 부합되면 계속 생산할수 있고 판매할수 있다는 것이다. 식품안전은 민중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 관계되기에 유관법적규정은 응당 엄해야 하며 절대 느슨해서는 안된다. 유해 물질이 조금이라도 들어있다면 즉시에 생산을 정지시키고 철저히 판매를 금지시켜야 한다.

중공은 왜 “독제품”을 합법화하고 있는가? 그것은 의심할바 없이 자기의 집단리익과 통치를 위해 민중을 마비시키고 경제위기를 완화시키려는데 있다. 중공은 입만 열면 “사람은 근본이다.”고 떠벌리고 있지만 기실은 백성의 생존권리를 협박하고 있는 최대의 “악독한 흑덕어리”이며 모든 재난의 근원이다.



악보 받아 사망된 공안국장들

1999년 7월 20일부터 중공의 파룬궁박해의 급선봉이 된 전국각지 공안국장들이 악보를 받아 사망되었다. 아래에 그중 일부분 국장들의 악보 받은 사례를 든다.

임장하, 등봉시공안국장, 2004년에 차사고로 사망.
곡만천, 장춘시공안부국장, 2004년에 인후암으로 사망.
루호원, 루하시공안분국부국장, 2005년에 술 먹고 급사.
양효강, 랑산시공안부국장, 2006년에 차사고로 사망.
리희찬, 하남성봉세공안국장, 2004년에 암으로 사망.
황정현, 백색시공안부국장, 2002년에 차사고로 사망.
공수병, 소주시공안분국부국장, 2005년에 총으로 자살.
한상빈, 수중현공안국장, 2008년에 산에서 떨어져 사망.
추방록, 내강시공안분국부국장, 2002년에 암으로 사망.
리장민, 령무시공안부국장, 2000년에 괴병으로 사망.
동건화, 위방시공안분국부국장, 2001년에 차사고로 사망.
양건교, 응성시공안부국장, 2008년에 전기에 붙어 사망.
손계표, 빈현공안국장, 2003년에 괴병으로 사망.
리생신, 이화현공안부국장, 2004년에 위암으로 사망.
진홍덕, 어대현공안부국장, 2008년에 차사고로 사망.
정화평, 주구시공안분국국장, 2008년에 차사고로 사망.
라건, 장수현공안부국장, 2005년에 차사고로 사망.
장진, 대방현공안부국장, 2008년에 비인두암으로 사망.
리해, 미산시공안국장, 2004년에 층집에서 투신 자살.
천문, 동량현공안국장, 2000년에 차사고로 사망.
주개, 마안시공안국장, 2001년에 차사고로 사망.



연변박해소식

■ 지난 4월 12일, 연변국보대대 박귀남과 연길시국보대대 초빈은 6,7명 악경들을 데리고 목단강시에 거주하고 있는 연길시파룬궁학원 리광석(李光石)과 그의 장인 양복진(楊福進)을 랍치하여 연길시간수소에 가두고 박해하고 있다.

■ 연길시파룬궁학원 정보화(鄭寶華)는 지난 9월 10일 화룡시악경들에게 랍치되어 화룡시간수소에 갇혀 벌서기, 잠 못자기 등 혹형을 받았다. 악경들은 단식하고 있는 그에게 억지로 음식물을 주입시키고 있다. 지난 9월 19일에 가족들이 그를 면회했다.(악경들은 록상을 하고 있었음.) 얼굴이 창백하고 피골이 상접한 그는 걸상에 앉아 아무말도 하지 못하고 흔들려 한쪽으로 뺄어진 이를 가리켰다. 가족들은 그를 병보석 해달라고 제기했지만 악경들은 《감옥에서 죽는 것은 아주 정상적인 것이요. 우리 간수소에서 사람이 죽는 것은 우리들과 아무 상관이 없소. 그들은 모두 절로 죽었으니깐.》 가족들은 화룡시인민대표와 정법위원회에 가서 상방했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답복도 없다.

■ 최근에 연길시 “610”들이 연길시대성부근의 립공술집에서 수명의 파룬궁학원들을 가두고 세뇌반을 꾸리고 있다.